

KIA '위기의 6월' '이닝이터'가 필요해

14경기서 7이닝 이상 소화 선발 핵터 뿐 한기주 등 부진에 최영필 등 불펜 과부하



'호랑이 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발진의 긴 이닝이 필요하다.

KIA는 핵터가 문을 열었던 지난 1일부터 핵터가 패전투수가 된 18일까지 6월 15경기에서 4승11패를 기록했다. 6월은 '불펜의 위기'로도 표현할 수 있다.

군계 마운드를 지켜주던 김광수가 흔들리면서 시작된 불펜의 균열이 선발진의 부진한 이닝에 가속화되고 있다. 5일 넥센 홈경기에서 김광수가 김하성에게 역전 투런을 허용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다음 등판이었던 8일 한화 원정에서도 0.1이닝 3실점으로 두 번째 패를 남겼다. 12일 삼성전에서 0.2이닝 3피안타 1볼넷 2실점으로 세 경기 연속 부진했다.

결국 14일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김광수가 자취를 감졌다. 6-4에서 시작된 9회, 박준표-홍건희에 이어 최영필이 마운드에 올랐다. 최영필이 볼넷과 안타로 두 명의 주자를 허용하고 내려왔고 이번에는 한기주가 투입됐다. 하지만 한기주는 김재환에게 역전 스리런을 맞은 뒤 에반스에게 쉐기포까지 허용했다. 충격적인 역전패 뒤 김기태 감독은 "짐을 덜어준다는 의미였는데 믿음을 주지 못했다"며 김광수를 투입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최고령' 최영필의 6월도 험난하다. 최영필은 6월 4경기에서 3이닝 7피안타 2볼넷 3실점, 9.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유의 정교함이 사라진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최영필이 3이닝을 막기 위해 던진 공은 무려 75개에 이른다. 두 베테랑의 부진 속에 선발진들의 이닝도 부족했다. 양현종이 9이닝 완투패

를 기록했던 11일을 제외하고 14경기에서 선발진이 담당한 이닝은 78.2이닝, 불펜진이 남은 43이닝을 책임졌다. 14경기에서 7이닝 이상을 버틴 선발은 핵터 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핵터도 7이닝 무실점 이후 세 경기 연속 6이닝에 머물렀다. 세 경기 평균자책점은 5.5,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면서 핵터 등판 경기에서 팀은 3연패 중이었다.

지크의 6월도 매끄럽지 못했다. 19일 등판 전까지 지크는 6월 3경기에서 16.2이닝 12실점(10자책), 5.40의 평균자책점을 찍었다. 6월 첫 등판이었던 2일 LG전에서 5이닝 9실점(7자책) 최악의 피칭을 했던 그는 8일 한화전 5.2이닝 무실점, 14일 두산전 6이닝 3실점을 했지만 두 경기 모두 불펜의 난조로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할 말 없는 지크다. 세 경기 소화 이닝은 16.2에 불과했지만 투구수는 347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피칭으로 동료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임시 선발 이준영이 4.2이닝, 정동현의 두 번째 선발 등판도 4.1이닝에서 끝나는 등 선발이 5회를 지켜주지 못한 경기들도 있었다.

결국 젊은 불펜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3일 선발 등판 이후 7일 불펜으로 자리를 옮긴 좌완 이준영은 6경기에서 3연투 포함 4이닝을 던졌다. 사이드암 박준표에게도 6월 3연투 기록이 남았다. 주중 두산과의 3연전에 모두 출격하는 등 6경기에서 4.2이닝을 막은 그는 18일 LG전에 다시 등판,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됐다. '고졸 투키' 전상현도 2이닝 두 경기 포함, 4경기에서 6.2이닝을 던졌다. 부상에서 복귀한 한승희도 1군 등록과 함께 17·18일 연달아 마운드에 올랐다. 14·15일 kt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3이닝을 소화했던 것을 감안하면 강행군이다.

선발진들의 긴 이닝이 절실한 '위기의 6월'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K 실축... 고개 숙인 호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18일 프랑스 파리의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조별리그 탈락 위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레알 마드리드)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포르투갈이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위 포르투갈은 1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 2016)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오스트리아(10위)와 득점 없이 비겼다. 2무가 된 포르투갈은 헝가리(1승1무), 아이슬란드(2무)에 이어 조 3위에 머무르면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 아이슬란드와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아이슬란드가 2-1로 포르투갈에 앞서 있다.

앞서 열린 헝가리(20위)와 아이슬란드(34위) 경기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르투갈은 슈팅 수에서 23-3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나 끝내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특히 후반 34분 페널티킥을 직접 얻어낸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날렸다. 오스트리아의 골키퍼는 자신의 왼쪽으로 몸을 날렸고, 호날두의 슛은 정면대를 향해 득점으로 이어지는 듯했으나 공은 골대를 맞았다.

호날두는 후반 39분에는 헤딩슛으로 오스트리아 골문을 갈랐지만, 이때는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 끝내 고개를 숙였다. 포르투갈은 전반 29분에 나니가 또 한 차례 오스트리아 골대를 맞히는 등 두 번이나 '골대 불운'에 시달렸다. 경기 후 "호날두가 어떤 기분일 것 같느냐"는 질문을 받은 포르투갈의 산토스 감독은 "이해할 것 같다"면서도 "호날두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씩씩해했다. 호날두는 이날 A매치에서 128번째 출장 기록을 세우며 루이스 피구(44)가 갖고 있던 포르투갈 선수 중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이날 페널티킥에 성공하면 자신이 참가한 4개의 유로 대회에서 득점을 올린 첫 번째 선수가 될 뻔했지만, 기회를 놓쳤다. 산토스 감독은 "우리는 오늘의 비참함

에 빠져 있을 수 없다"며 "22일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이번 대회 우리의 마지막 경기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를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축구"라며 "우리는 이겨야 한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잘했지만, 단지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위안했다.

인구 32만명의 '소국' 아이슬란드 역시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였다. 아이슬란드는 이날 갈비 시구르드손이 전반 40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으나 후반 43분 자책골이 나오면서 승리까지 얻지는 못했다. F조 최종전은 헝가리-포르투갈, 아이슬란드-오스트리아 경기로 펼쳐진다. /연합뉴스

추신수, 오승환에 판정승

역전 발판 안타... 박병호 열흘만에 12호 홈런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동갑내기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벌인 메이저리그 첫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열흘 만에 홈런포를 가동했다. 시즌 12호이다.

추신수는 1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원정경기 0-3으로 밀린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4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마운드에는 오승환이 서 있었다. 둘은 2000년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고 투수(추신수), 경기고 외야수(오승환)로 맞대결한 후 16년 만에 투타를 바꿔 상대했다.

8회초 등판한 오승환은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지만 추신수를 놓쳐서 못했다. 2스트라이크에서 추신수는 오승환의 151km짜리 직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쳤다. 오승환은 후속타자 이안 데스몬드에게 우익수 쪽 2루타를, 이어진 2사 2-3루 마자라의 타석에서 폭투를 범해 실점했다. 이때 추신수가 홈을 밟았다.

오승환은 이어 1루 땅볼을 유도했으나 1루수 맷 애덤스가 공을 놓치면서 이날 1이닝 3피안타 2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 1타점으로 활약했다. 추신수는 1회초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의 시속 158km 강속구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9회초 1사 만루에서는 풀카운트 끝에 볼넷을 골라내 3-3 동점 타점을 올렸다. 텍사스는 데스몬드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역전에 성공하며 4-3으로 승리했다.

박병호는 부진 탈출을 알리는 홈런포를 쏘았다. 박병호는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3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째 타석에 나왔다. 1-0으로 앞선 4회 2사 3루, 박병호는 양키스 선발 마이클 피네다의 초구 154km 직구를 공략해 우중간 펜스를 넘기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그의 12호 홈런은 빅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득점권 상황에서 나온 대표이기도 하다. 미네소타는 6-7로 패해 5연패의 늪에 빠졌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시카고 컵스와 방한 경기에서 4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1회초 1사에서 강정호는 컵스 선발 존 레스터의 유인구를 잡아내며 볼넷을 골랐다. 3-4로 뒤진 8회초 세번째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컵스 페드로 스트롭과 풀 카운트 접전을 펼치다 시속 135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날 피츠버그는 3-4로 역전 패하며 4연패 늪에 빠졌다. /연합뉴스

1골 2도움... 펠펠 난 메시

아르헨, 베네수엘라 4-1 꺾고 4강 진출

칠레 바르가스 4골... 멕시코 7-0 완파



아르헨티나가 '축구신' 리오넬 메시(29)를 앞세워 23년 만의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위해 전진했다.

아르헨티나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8강전에서 메시의 1골 2도움과 곤살로 이과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베네수엘라를 4-1로 완파했다. 이로써 앞서 에콰도르를 2-1로 꺾은 개최국 미국과 오는 22일 결승행을 다투게 된 아르헨티나는 1993년 대회 이후 23년 만에 다시 우승을 노리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이날 리오넬 메시가 이번 대회 첫 선발 출전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전반 3분 만에 메시의 원발 슈팅으로 기선을 제압한 아르헨티나는 5분 뒤 베네수엘라의 골망을 갈랐다. 메시가 상대 오른쪽 후방 스로우 라인 부근에서 골대 앞으

로 크로스한 것을 쇄도하던 곤살로 이과인이 공의 낙하지점에 정확하게 맞춰 오른발을 갖다 댔다. 이 공은 골키퍼 옆을 가로지르며 골망에 꽂혔다. 전반 28분 이과인이 상대 백패스를 가로챘 뒤 골키퍼를 제치고 가볍게 원발로 차넣으며 추가골을 만들었다.

베네수엘라도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35분 아르헨티나 진영에서 불을 뿜은 뒤 호세 살로몬 룬돈이 강력한 원발 슈팅을 날렸다. 4분 뒤 룬돈의 헤딩슛은 아쉽게 왼쪽 골대를 강타했다. 전반 41분에는 톨페 펠페의 원발 중거리 슈팅이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갈 뻔 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그리고 전반 43분 아르헨티나 골키퍼 반칙으로 페널티킥까지 얻었다. 하지만 루이스 세이아스가 실축하면서 추격의 기회를 놓쳤다.

후반 들어 베네수엘라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경기는 팽팽한 양상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메시가 쉐기를 박았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15분 상대 진영에서 불을 가로쳤고, 메시가 니콜라스 가이탄과 2대



아르헨티나의 메시(왼쪽)가 18일 미국 매사추세츠 폭스버러의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팀의 4번째 골을 넣은 에릭 라멜라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문 앞에서 원발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25분 베네수엘라 룬돈의 헤딩슛에 한 골을 허용했지만 1분 뒤 메시의 도움을 받은 에릭 라멜라가 오른발 슛으로 다시 골망을 흔들며 베네수엘라의 기를 꺾었다.

'다덴딩 챔피언' 칠레는 이날 캘리포니

아주 산타 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 8강전에서 혼자서 4골을 폭발한 에두아르도 바르가스도 메시의 득점에 힘입어 7-0 대승을 거두고 가볍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칠레는 23일 먼저 4강에 선착한 콜롬비아를 상대로 결승 진출을 노린다.

/연합뉴스